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사정 상, 향후 수일간 경제 정보가 없는 점 양해 요청드립니다.

[미국 경제]

- Bloomberg: 11월 미 소비자 심리, 거의 바닥으로 떨어져
- WSJ: 5년간 미 인플레이션 중산층 흔들려
- Bloomberg: 뉴욕 연준 총재 “가까운 시일에 금리 인하 여지 있다”

[미국 금융]

- Reuters: 연준 부의장 Jefferson “AI 관련 종목, 닷컴 붐 재현되지 않을 듯”

[뉴욕시]

- Bloomberg: 뉴욕시 ‘임대 안정법’ 적용 아파트 건물주들, 보험 비용에 부담

[미국 생활]

- CNBC: ‘Z 세대, 베이비붐 세대보다 재정적 은퇴 준비 더 낫다’

[인공지능]

- WSJ: 소기업들 인공지능 활용 늘어난다
- CNBC: 구글과 아마존도 엔비디아 처럼 자체 칩 생산 시도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 WSJ: GE, 리소링 관련 미 공급업체들에 1억5천만불 투자

[미국 경제]

Bloomberg: US Consumer Sentiment Falls to Near Lowest on Recor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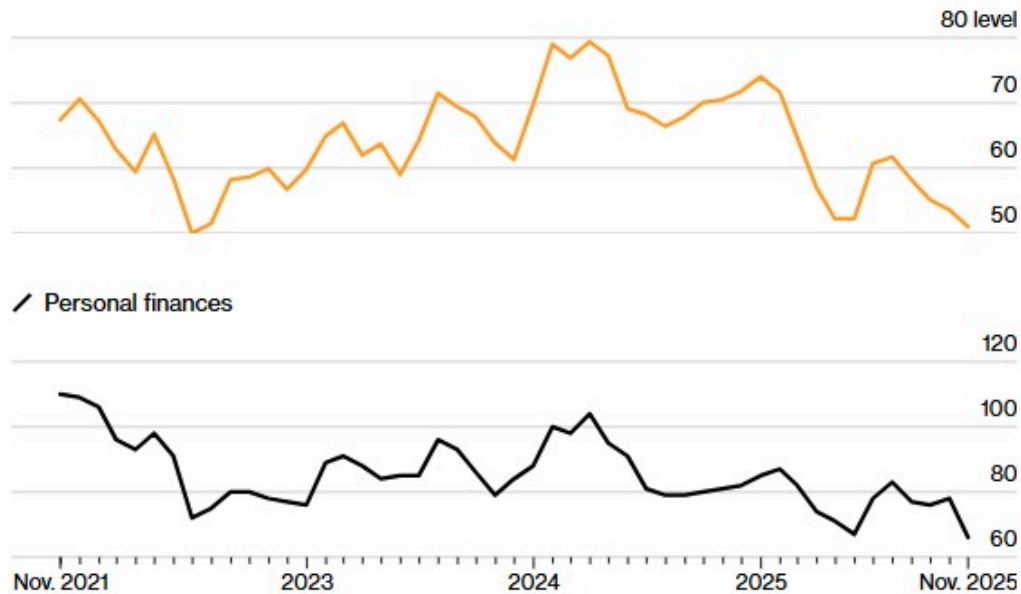
11월 미 소비자 심리, 거의 바닥으로 떨어져

- 미시간 대학의 설문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들이 자신의 재정 상황에 대해 부담을 느끼면서 11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거의 바닥으로 떨어졌다.
- 자신의 재정 상태에 대해 2009년 이래 가장 어두운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고물가와 상대적으로 낮은 수입으로 좌절 상태에 있다는 것이다.
- 오늘 발표된 관련 조사에서 11월 신뢰지수는 10월의 53.6에서 51로 떨어졌다.
- 현재의 여건 지수는 7.5 포인트 떨어진 가장 낮은 51.1을 보였다. 개인의 재정 상태로 2009년 이래 가장 낮게 평가하고 있다.

US Consumer Sentiment Falls Close to Record Low

Views on personal finances sink to lowest in 16 years

Consumer sentiment



Source: University of Michig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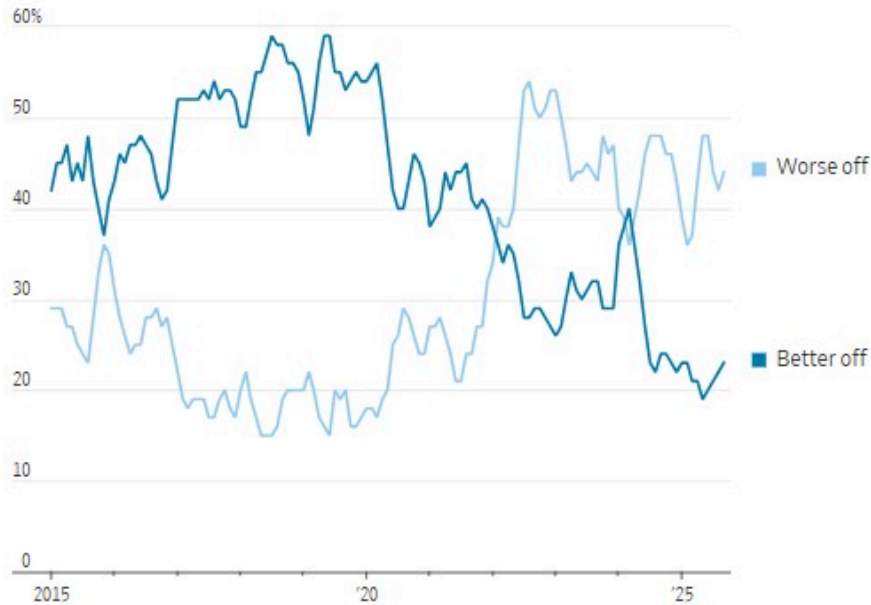
Bloomberg 기사

WSJ: The Middle Class Is Buckling Under Almost Five Years of Persistent Inflation

5년간 미 인플레이션으로 중산층 흔들려

- 미 중산층이 지속적인 고물가로 인해 개인 재정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 제품과 서비스 비용이 지난 2020년과 비교 25% 상승해 중산층 소비자들은 점차 절약을 해야 하는 상황을 맞고 있다.
- 9월 미시간대학 설문 결과에 따르면 중산층 44%가 작년 1년간 자신의 재정 상태가 악화했다고 답했다.

Change in personal financial situation over the last year, middle inco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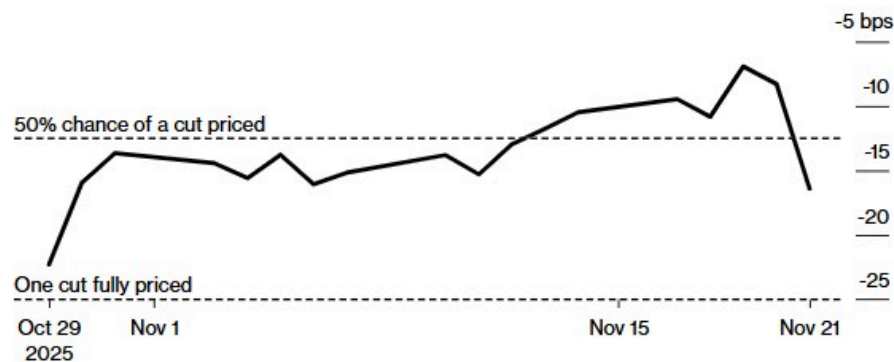
WSJ 기사

Bloomberg: Fed's Williams Sees Room for a Rate Cut in 'Near Term' 뉴욕 연준 총재 “가까운 시일에 금리 인하 여지 있다”

- 뉴욕 연준 총재인 John Williams는 노동 시장이 둔화하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더 금리를 인하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 그는 인플레이션 상방 리스크가 둔화하고 있는 반면에 고용 하방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면서 “현재 통화정책은 약간 제약적인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 투자자들의 연준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45%로 보았으나 뉴욕 연준 총재의 이 같은 발언 후에 그 가능성이 65%로 상승했다.

December Fed Rate Cut Hangs in Balance as Risk Aversion Rules

Traders now see greater than even odds of a reduction next month as markets swoon across the globe



Source: Bloomberg

Bloomberg 기사

[미국 금융]

Reuters: Fed's Jefferson: AI-related stock gains unlikely to be dot-com boom replay**연준 부의장 Jefferson “AI 관련 종목, 닷컴 붐 재현되지 않을 듯”**

- 연준 부의장 Philip Jefferson은 오늘 금요일 최근의 인공지능 관련 주식 종목의 급등 현상은 결국 무너진 1990년 후반 닷컴 버블의 재현으로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공지능 주식 관련 회사들이 잘 정착되어 있고 실제 실적도 좋다는 것이다.
- 그는 인공지능 투자자들의 열정을 ‘건전하고 탄탄한’ 금융시스템의 기반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인공지능 기업들은 부채 신용에 심각하게 의존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 한편 최근 연준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의 30%가 인공지능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으로 돌아선 것이 미 금융 시스템과 글로벌 경제에 뚜렷한 위협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Reuters 기사

[뉴욕시]

Bloomberg: Soaring Insurance Costs Hit Owners of NYC Rent-Stabilized Units**뉴욕시 ‘임대 안정법’ 적용 아파트 건물주들, 보험 비용에 부담**

- 급등하는 보험 비용으로 인해 렌트 안정법이 적용되는 임대료 낮은 뉴욕시 아파트들이 위협을 받고 있다. 관련 보험 비용이 지난 2019년부터 2025년까지 150% 올랐기 때문이다.
- 이들 아파트 건물주가 지불하는 보험 비용이 크게 상승하고 있는 이유는 기후 리스크와 더불어 다세대 보험을 카버하는 보험 회사들이 줄고 있다. 이들 렌트 안정법 적용 아파트들에는 보험 산정 방식 불리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 이들 아파트 건물주는 유지 보수와 유틸리티 등 높은 운영 비용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또한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 규정 위반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인플레이션을 조정하고 나면 전반적인 운영 비용은 낮아졌다는 것이다.

Bloomberg 기사

[미국 생활]

CNBC: Gen Z may be more prepared for retirement than baby boomers, study finds**‘Z 세대, 베이비붐 세대보다 재정적 은퇴 준비 더 낫다’**

- Z세대는 독립적인 생활 나이가 늦어질 수 있다. 즉, 경험이나 자녀를 갖는 연령이 늦춰질 수 있다. 그러나 재정적인 은퇴 준비는 베이비세대 보다 더 나을 수 있다.

- 투자은행 Vanguard에 따르면 현재 24세에서 28세 연령자들의 47%가 은퇴 후에도 현재와 같은 생활 스타일을 유지할 정도로 충분한 돈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충분한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다는 비율은 모든 연령에 관계없이 42%로 나타났으며 29세부터 44세 사이의 밀레니엄 세대의 그 같은 비율은 42%로 Z 세대와 큰 차이가 없었으며, 45세부터 60세까지의 X 세대는 41%, 61세부터 65세까지의 40%가 충분할 것이라고 답했다.

CNBC 기사

[인공지능]**WSJ: These Small-Business Owners Are Putting AI to Good Use****소기업들 인공지능 활용 늘어난다**

- 소기업 58%가 생성형 AI를 활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 2024년 40%에서 증가된 비율이며 2년전에 비해 두배를 증가했다고 미상공회의소 설문 조사 결과 밝혀졌다. 이 조사에 따르면 설문 조사한 3천 8백 업체 중에 58%가 생성형 인공지능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 이들 인공지능이 활용되는 분야는 비용 분석, 고객 서비스, 근무 스케줄 변경 시스템 웹사이트 개발 등 다양하다.
- 이들 소기업 경영주는 인공지능으로 인해 자신들이 매니저 숫자도 줄이고 떠나는 직원을 보충하지 않는 등 직원 숫자를 줄이고 있다고 말했다.

WSJ 기사

CNBC: Nvidia is king in AI chips, but Google and Amazon want to catch up by making their own**구글과 아마존도 엔비디아 처럼 자체 칩 생산 시도**

- 엔비디아의 경영자 젠슨 황은 자사의 블랙웰 GPU 판매가 엄청나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분석가들에 따르면 고객 맞춤형 반도체 칩인 ASICs의 성장도 빠르다는 것이다.
- 현재 이같이 값싸고, 초점을 줄인 맞춤형 Chip은 구글, 아마존, 메타, 마이크로 소프트, 오픈 AI 등이 자체적으로 디자인하고 있다.
- 현재 구글의 TPU는 모든 맞춤형 AI 칩 중에 선두를 달리고 있는데 일부 사람들은 이 같은 칩이 기술적으로는 엔비디아의 GPU와 동등하거나 더 나을 수 있다고 까지 생각하고 있다.

CNBC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동향]**WSJ: GE Appliances Invests \$150 Million in U.S. Suppliers in Reshoring Push****GE, 리쇼링 관련 미 공급업체들에 1억5천만불 투자**

- GE Appliances는 세탁기와 세탁/건조기 제조를 미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미국 22개 부품 공급업체에 1억5천만불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 이번 투자는 이 회사가 미국 공장을 늘리고 중국과 멕시코 생산으로부터 미국으로 리쇼링 하려는 30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것이다.
- 이번 투자 덕분에 Jones Plastic, RCM Industries 같은 공급 업체들은 운영 및 고용, 신규 장비 구매들에 투자할 예정이다.

WSJ 기사

KOCHAM | 460 Park Ave | New York, NY 10022 US

[Unsubscribe](#) | [Constant Contact Data Notice](#)